

지역 소식 통

정읍시, 농식품부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공모 선정

정읍시 친환경농업농조합법인(이하 농립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 조사료 전문단지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이번 선정으로 5년간 3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확보된 사업비는 향후 5년간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용 기계장비 △종자구입비 △퇴악비 살포비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사업은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와 가공·이용 활성화를 통해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됐다. 1차 심사를 통과한 전국 11개 조사료 생산 법인·단체를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들이 조사료 공급능력, 유통체계 구축·운영, 사업적성성 등을 기준으로 서면 심사와 발표 등 종합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자를 선정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2026학년도 대학 수험능력시험 응원캠페인

부안군 유관기관인 부안경찰서, 부안교육지원청,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회 부안지구와 함께 13일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안군 시험장인 부안고등학교와 부안여자고등학교 앞 정문에서 입실하는 수험생들을 격려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2026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안군 응시자는 총 362명으로 부안고등학교에서 177명, 부안여자고등학교에서 185명이 시험을 치렀다. 이날을 위해 열심히 달려온 수험생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그동안 흘린 땀방울과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며 수험생들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간식 식품 전달하며 밝은 미소로 수험생과 청소년들에게 힘을 북돋아주었다. 이날은 청소년 관련 유관기관(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다 양한 지원 물품들을 준비, 부안군민들의 기운을 가지고 입실하였다. /부안=김석진 기자

‘과학영농 통합관제체계’ 본격 운영

정읍시, 통합관제 프로그램 개발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데이터 기반 농업혁신 추진

농가 환경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최적의 의사결정을 돕는 ‘과학영농 통합관제체계’가 오는 12월 중순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정읍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는 지난 12일 제2청사 2강의실에서 과학영농 통합관제체계 프로그램 개발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AI 기반 농업 지식 서비스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농촌진흥청 관계자, 전문가, 담당 공무원, 관내 농가 등 25명이 참석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과학영농 통합관제체계 구축사업’은 재배환경(온습도·광량·CO2)과 근권부(배지 무게·함수율·배액 EC·pH) 데이터를 수집·통합·분석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최적의 작물 생육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농가에 실시간으로 의사결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는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사업을 지원받아 총 4억원을 투입했으며, 현재 농업환경 모니터링 센서 설치, 관제 플랫폼 개발, 데이터 연계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번에 개발 중인 통합관제 프로그램은 생육환경과 기상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 이상 감지 시 경보 알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농가 맞춤형 환경 분석, AI 기반 농업지식 서비스, 농업기술원·농민청 등 유관기관 데이터 연계 기능도 갖췄다. 이용관 소장은 “이번 통합관제체계 구축은 농업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영농관리 체계를 만드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AI와 IoT를 접목한 정읍형 스마트농업 모델을 통해 농업인의 생산성과 경영 안정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고창군, 공공데이터 공동 활용 추진

적극행정 실천... 데이터 행정 선도 기반 마련

부안군이 데이터 기반행정 활성화에 발맞춰 인근 고창군과 손잡고 공공데이터 공동활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 추진은 지자체 간 공공데이터 공동활용의 필요성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양 군은 유사 행정분야 데이터를 통합·표준화하여 공동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담당자들에게 소개 및 교육을 통해 공공데이터 공동개발과 신규 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부안군과 고창군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데이터 품질 향상과 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양 지자체 마스코트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카드뉴스 홍보를 통해 주민과 기업이 공공데이터를 보다 쉽게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행정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협력을 통해 향후 광역 단위의 공공데이터 공동개발 모델을 선도하고, 민간 및 기업의 데이터 활용 수요에도 대응할 수 있는 지역 맞춤형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고창=김영식 기자

고창군, 2025년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수료식 열어

‘19세대 고창군 전입준비’

고창군이 13일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에서 2025년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수료식을 열고 한 해의 교육성과를 공유했다. 이번 수료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 조민규 고창군의회 군의장, 교육생 및 관계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체류형 농업창업교육과 새내기 농업학교를 수료한 46명의 교육생에게 귀농·귀촌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다. ‘고창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는 농촌 정착을 희망하는 도시민과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체류형 숙소와 기초 영농교육,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시민의 농업창업 초기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 정착을 돕고 있다.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작물 재배 및 하우스 재배 실습, 농업창업경영, 귀농 정책 이해, 선진농가



견학 및 멘토링 등 총 320시간 진행하였으며, 귀농귀촌에 필요한 실습 중심 교육으로 운영됐다. 특히, 올해 체류형 입교생 30세대 중 19세대가 고창군에 전입을 준비하고 있어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이 실질적인 정착 성공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2018년부터 185세대의 교육생을 배출하고, 평균 정착률도 68%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귀농귀촌 정착률 우수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군은 2026년도 체류형 농업창

업 교육생을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모집하며, 농어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예비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도시민이 실패 없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단계별 지원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교육, 주거, 정착까지 연계된 체계적인 귀농·귀촌 지원정책을 통해 더 많은 도시민이 고창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한결영농조합 양곡 생산자단체 1위

고창 친환경쌀, 서울 학교급식 공모 전국 1위 선정

고창군이 최근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실시한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및 양곡 생산자단체 선정 공모’에서 고창 한결영농조합법인(대표 박종대)이 전국 1위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한결영농조합법인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서울시 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어린이집에 고창산 친환경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서울 지역 학교(1080곳), 어린이집(1502곳)에 고창 친환경쌀을 공급하게 된다. 이번 평가는 전국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서류심사, 제안서 발표, 현장 및 경영평가를 거쳐 진행됐으며, 한결영농조합법인은 생산시설, 식품안전

성, 품질관리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전국 1위로 최종 선정됐다. 한결영농조합법인이 학교급식으로 공급하는 ‘수광쌀’은 고창군 농가들이 화학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제초제 대신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한 유기인증 친환경 쌀이다. 특히 ‘수광벼’는 농진청이 개발한 밥쌀용 최고품질 품종으로, 아밀로스와 단백질 함량이 낮아 찰기가 좋고 밥맛이 뛰어나 소비자와 학교급식 관계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결영농조합법인 박종대 대표는 “서울시 학교급식 공급단체 1위 선정을 통해 고창쌀의 우수성이 전국적으로 입증됐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공공비축미 매입 현장 방문

정읍시가 올해 1만 3000여 톤의 공공비축미곡 매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학수 시장이 13일 건조벼 매입이 한창인 이평면 정부양곡창고를 찾았다. 이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품질 쌀 생산에 힘쓰는 농업인들과 지역농협, 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올해 정읍시의 공공비축미곡 매입 물량은 총 1만 3046톤이다. 세부적으로는 건조벼 9839톤, 산물벼 1240톤, 가루쌀벼 1967톤이 배정됐다. 산물벼는 지난달 10일 영원 RPC(미곡종합처리장)를 시작으로 지난달 28일 매입이 완료됐으며, 현재는 가루쌀벼와 건조벼 매입이 진행 중이다. 매입 중인 건조벼 품종은 신동진, 새청무 2개 품종이다. 시는 기타 품종이



20% 이상 혼합될 경우 향후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농가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매입가격은 조곡 40kg 기준으로, 매입 직후 4만원의 중간정산금을 지급한다. 최종 정산금은 벼 수확기(10~12월) 전국 평균 산지쌀값을 40kg 조곡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오는 12월 말에 확정돼 지급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심덕섭 고창군수, 공공비축미 수매현장 방문

심덕섭 고창군수가 13일 오전 성송면 학전창고와 고창읍 월산창고에서 진행된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수매현장을 방문해 농업인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심덕섭 군수는 올해 벼 작황과 수매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쌀값 불안정·소비 감소·병해충 발생 등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고충을 경청했다. 또한 “현장에서 들은 의견을 향후 농정운영의 중요한 방향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올해 고창군의 공공비축미 매입 물량은 9123톤으로, ‘신동진’과 ‘수광’ 2개 품종을 중심으로 가루쌀 물량도 합



계 포함된다. 산물벼는 11월 초까지 건조벼는 12월 초까지 지정된 수매장에서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입이 진행된다. 특히 고창군은 올해 병해충과 이상기온 등으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벼 전량 매입을 결정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